

한동훈·이재명 대표 25일 회담... '채상병 특검법' 협의 주목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대화의 장 국회, 금투세 폐지 등 논의 계획 민주당은 25만원법·특검법 최우선 두 대표 모두 의제에 열린 입장 민생현안 공통분모 찾을지 관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갈등과 대립만 빚어온 여야가 대표 간 대화의 장을 통해 협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양 당 대표의 주장과 가치가 너무 달라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이견 차이가 커 쉽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9일 언론공지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회담을 통해 지금 미뤄지고 있는 민생 과제에 대해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실무협의를 지시했다.

전날 연임을 확정지은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양자 회담을 제안했다.

양당 대표 회담은 각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마주 앉는다는 자체로 이목을 끌지만, 만남이 성사될 경우 테이블에 오를 회담 의제도 관심사다. 현재 여야의 기류를 보면 회담 의제에 대한 선작지 않은 온도 차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당정이 추진하는 민생·정책 이슈를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반도체 특별법,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국의 주요 쟁점인 '채상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의제로 꺼내 들 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연주·한준호·김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화·김병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적 수락 연설에서 한 대표와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요구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도 테이블에 올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이 대표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의제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표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자 차기 대권주자로서 기존 지지층 외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도모하는 상황이다 보니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금투세 및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음에도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해왔다.

반대로 채상병특검법은 당내 이견 속에서 한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미 을지연습 시작...尹 "강력한 힘으로 자유와 번영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첫날인 19일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는 북한이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 풍선 살포를 지속하는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연습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연합 방위 태세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만큼, 이번 연습을 통해 우리의 방어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정부 부처가 실천과 같이 연습에 임하는 한편, 우리 군을 포함해 연습에 투입되는 인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을해 UFS 연습은 북한의 GPS 교란과 사이버 공격 등 회색지대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연합 방위 태세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만큼, 이번 연습을 통해 우리의 방어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정부 부처가 실천과 같이 연습에 임하는 한편, 우리 군을 포함해 연습에 투입되는 인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을해 UFS 연습은 북한의 GPS 교란과 사이버 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태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중 국가안보실 제3차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30.7%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1%·민주당 4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7%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3.2%p 오른 65.4%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서울(6.2%p ↓), 대전·세종·충청(5.2%p ↓), 인천·경기(4.4%p ↓), 대구·경북(4.3%p ↓)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부

산·울산·경남(5.9%p ↑), 광주·전라(5.0%p ↑)에선 올랐다.

연령대별로 60대(11.1%p ↓), 50대(8.4%p ↓), 40대(2.4%p ↓)에서 하락했고, 20대(5.0%p ↑), 30대(2.1%p ↑)에서 상승했다.

이번 성향별로는 중도층(3.7%p ↓), 보수층(2.3%p ↓)에서 하락, 진보층(1.1%p ↑)에서 상승했다.

정당별 지지도에서 야당은 크게 오르고, 반대로 여당은 크게 내려갔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5.4%p 오른 42.2%, 국민

의힘은 6.8%p 내린 31.0%였다. 양당 간 차이는 11.2%p로 4주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린 것은 지난 5월 2주차 이후 3개월 만이다.

조국혁신당은 1.1%p 오른 9.7%, 개혁신당은 1.4%p 내린 3.1%, 새로운미래는 0.4%p 오른 2.2%, 진보당은 0.1%p 오른 1.4%, 무당층은 1.6%p 오른 9.3%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4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각각 2.8%, 2.7%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009명과 1005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p,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혁신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등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